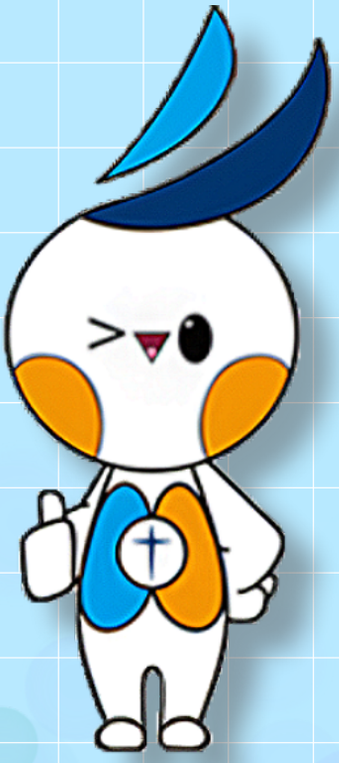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JESUS UNIVERSITY

vol.4

NEWS LETTER

학생 혁신 서포터즈 JU IN CREW 3기



학생 혁신 서포터즈 참여 후기

예수대생은 다 모여라!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부스
학생혁신 서포터즈 3기 생생한 참여후기!

NEWS 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 혁신 사업 학생 서포터즈 JU IN CREW 3기 Vol.4

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예수대학교 사업단 &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부서, 역량, 교과-비교과 등 경계를 허무는 교양교육, 휴먼서비스 진로 교육체계 고도화와 현장 주도형 하이브리드 실습 교육 및 산업체 맞춤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성장을 실현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 미래사회의 글로벌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혁신으로 전문 간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대학교 대학혁신 서포터즈

예수대학교 대학혁신사업 서포터즈는 JU IN CREW를 활동명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지도 강화 및 활성화와 구성원 간 쌍방향 소통 창구 마련 및 혁신사업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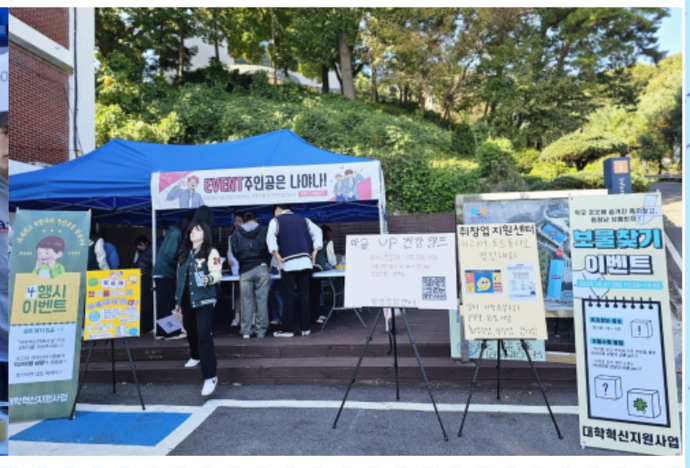
2024 예수대 축제 부스 운영

저희 JU IN CREW는
24년도 10월에 진행된 예수대학교 축제에서
학우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학교 곳곳에 쪽지를 숨겨 학우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재밌는 보물찾기와
"혁신지원사업"으로 6행시 이벤트를 실시하여
공부와 실습에 지쳐있는
예수대학교 학우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참여해주셨고,
이 감사함을 전하고자 많은 이벤트 상품과
참여신청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총장님과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건
그만큼 저희가 잘 준비한 것이겠죠?!



JU IN CREW 3기를 마무리하며

이서영 (간호학부 4학년)

안녕하세요 학생 혁신 서포터즈 3기 기장 이서영입니다.
저는 지난 2기부터 서포터즈단을 2년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조차 몰랐는데 차츰 활동하면서 서포터즈단에
걸 맞는 사람이 된 거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사업을 알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며 돌아보면
성취감이 남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성장한 거 같아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작년 2기에서는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단원이었다면 올해 3기 활동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장의 역할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부담감이 따랐지만,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사업단 선생님들과
뒤에서 묵묵히 따라와 주는 단원들 덕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뽑자면 저희 서포터즈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축제 부스입니다. 회의를 통해 이벤트 종류도 고르고 베너 디자인 제작과
학우들께 나눠 줄 다과 준비까지 한 뒤 축제 당일 부스 운영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주고
교수님들도 재미있게 즐기고 간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학우들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서포터즈단을 각인시킨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시는 경험해 보지 못 할 것들을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이 기억은 평생 저에게 좋은 밑거름이 될 거 같습니다.

김선아 (간호학부 3학년)

안녕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3학년 김선아입니다!
지난 1년,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그 반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이바지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내 주요한 프로그램의 홍보를 맡아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의 참여 후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는 새롭게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기획부터 구성, 제작까지의 모든 과정이 생소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축제 부스를 운영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과 JU IN CREW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다만, 3학년 실습 일정으로 인해 모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서포터즈 회의 등 모든 일정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참여했었기에
더욱 뿌듯했던 1년이었습니다.

만일 학교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교내 프로그램 대부분이 혁신 지원을 통해 운영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요청과 참여 후기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개선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 정말 의미있었던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드리며,
1년 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지윤 (간호학부 3학년)

안녕하세요. 서포터즈 3기 3학년 설지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알고 학생에게 홍보하고 직접 참여를 통해
저에게 필요한 역량을 채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취창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홍보하면서 센터에서 각 학년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취업역량을 채워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시기와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올해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에게 대학 혁신사업과 서포터즈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대학 혁신지원프로그램과
서포터즈의 활동을 소개하며 반응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서포터즈
뉴스레터를 매 분기 제작하면서 활동을 정리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매달 회의를 통해 다른 서포터즈의 활동을 보고
다양한 혁신지원 사업을 알아가며 의견과 소감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재학생을 대표하여 회의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황과 의견을 학교에 전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대학구성원으로서 학교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양지한 (간호학부 2학년)

안녕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예수대학교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한 간호학부 양지한입니다.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담당하여 센터 선생님을 도와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는 것도 즐겨하는 학생이라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맡은 센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센터 선생님과 회의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때 선생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도맡아 동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다양한 SNS에 직접 홍보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처음에 홍보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지만,
점차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홍보물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면서
저의 창의력과 사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센터 선생님과 성과를 공유할 때마다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뿌듯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학생들과 유대감도 쌓고 다른
서포터즈와 함께 협력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홍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소통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서포터즈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서포터즈로 활동한 학생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양은선 (간호학부 2학년)

안녕하세요 학생 혁신 서포터즈 3기 간호학부 2학년 양은선입니다.
학생 혁신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각 센터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포터즈를 하기 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재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많이 참여했지만 서포터즈로서 친구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를 통해 많은 참여율을 늘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각 센터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친해지고
선생님들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건의할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수정사항들이 생겨나는 것 또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서포터즈로서 축제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 운영 계획부터 이벤트, 프로그램 준비까지 학생들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던 혁신서포터즈 6행시 이벤트를
직접 진행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축제부스를 운영하며 서포터즈들끼리 서로 더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경험이라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수민 (간호학부 2학년)

안녕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서포터즈 오수민입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후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여러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혁신 서포터즈는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와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이루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하며 학업, 개인 성장,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모두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경험과 배움을 쌓아 가치 있는 대학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중 재학생을 대표하여 만족도 조사 회의 참여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서포터즈로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건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며 학생들과 학교 간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더 나은 캠퍼스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전적인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갔습니다.
1년 동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은
매우 가치 있는 대학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24년도 서포터즈를 위해 노력하신 예수대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많은 활동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진 (간호학부 1학년)

안녕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서포터즈 박예진입니다.

저에게 1년간의 학생 서포터즈 활동은 저의 대학생활을 바꿔준 전환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입학했을 당시 저는 학교 생활에 적응도 힘들 것 같고, 적극적인 활동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OT날 서포터즈 소개를 들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저는 교수학습개발센터를 담당하게 되었고 프로그램 홍보와 진행 서포트를 맡았습니다. 덕분에 교수님들과 선배님,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주의깊게 살피고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홍보물과 후기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에는 저도 다른 서포터즈분들의 제작물인 '대학생에게 유용한 어플', '공강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 '과제tip' 등을 읽으면서 실제 대학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저의 제작물도 많은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자극을 받아 더욱 열심히 참여 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쳤을텐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프로그램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대학에 원활하게 적응을 도와주었고, 예수대학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콘텐츠 생성과 제작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서포터즈를 함께 했던 선배님 동기, 그리고 각 센터 교수님들과 서포터즈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배윤주 (간호학부 1학년)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3기 배윤주 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대학 생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낯선 환경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점차 적응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포터즈에 지원했을 때는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 활동을 하며 그 역할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대학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물, 정보 등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했던 경험들입니다.

특히 지역협력센터에서 진행한 “홀몸 어르신 정서 지원 멘토링”에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자로서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신과 교류했는데, 오히려 어르신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제에서 서포터즈 부스를 운영한 경험도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가 없었지만, 부스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알릴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생대표 회의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며 학생과 학교 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제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대학교 JESUS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